

사회의학			번호: III - C - 4		
제 목	국문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영문	Study for Health Risks of Residents nearby US Army Camp			
저 자 및 소 속	국문	주영수 ¹⁾ , 권영준 ¹⁾ , 우석균 ²⁾ , 김정범 ²⁾ , 윤종구 ²⁾ 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2)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영문	Young-Su Ju ¹⁾ , Young-Jun Kwon ¹⁾ , Seok-Kyun Woo ²⁾ , Jeong-Bum Kim ²⁾ , Jong-Gu Yoon ²⁾ 1)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2)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분 야	보건관리 사회의학	발 표 자	주영수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1월				
<p>1. 연구 목적</p> <p>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40개가 넘는 미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 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도심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과는 달리 미군기지는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연락과 수송의 대부분을 헬리콥터나 군용기로 해결하고 있어, 도심의 환경과 안전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군 마항리 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청력장해를 호소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등, 그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도심의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기지에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들과 이로인한 건강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도심의 미군기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구 캠프워커, 군산 미공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503명)와 순음청력검사(94명, 청력검사는 춘천지역과 군산지역에서만 시행)를 실시하였고, 이를 mixed model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은 근접지역 거주자들이 모든 항목(시끄럽다, 성가시다, 짜증이 난다, 주의 집중이 안된다, 능률이 떨어진다, 수업이나 업무가 중단된다 등)에서 대조지역 거주자들 보다 반응의 심각함을 호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수준(PWI) 결과 또한 근접지역 거주자들의 수준이 대조지역 거주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 정신심리적 이상 측정(SCL-90-R) 결과에서도 항목 모두에서 근접지역 거주자들이 대조지역 거주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청력측정 결과도 좌우, 전주파수대(500, 1K, 2K, 4K, 8K)에서 근접지역 거주자들이 높은 역치값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흡시나 모를, 연령차이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p>					

4. 고찰

측정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과거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력 혹은 사회력이 있거나, 고막을 이학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청력분석 결과의 타당도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며, 기타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된 연구들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미군기지 근접지역 거주자들은 소음에 의하여 청력이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었고,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유무형의 위협으로 부터 스트레스와 정신심리적 건강위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